햄버거 임자

(롬1:18~32)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햄버거 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이제는 35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평택의 미군부대로 보내어졌어요. 이곳에 와서 4주에 걸쳐 카투사로서 지내야할 미군부대 생활을 대비한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70년대 말 우리나라의 상황과 견주어 볼 때 미군부대 안은 그냥 미국 자체였고 별천지였습니다.

놀라움과 환희에 차서 시작된 카투사 교육부대의 생활이 한 3, 4일쯤 지났을 때로 기억합니다. 다른 카투사 교육병과 함께, 참으로 휘황찬란하다고 밖에 묘사가 안 되는 미군 부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의 테이블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접시가 놓여있고 그 위에 햄버거 두 개와 프렌치프라이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 점심 때 제공되는 메인메뉴인 치킨 다리와 햄버거 중에 치킨다리를 골랐어요. 받아온 치킨다리를 먹는데 자꾸만 눈이 그 접시로 갑니다. 식사가 다 끝나가도록 그 햄버거 임자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 식사는 끝이 났지만 도저히 저 햄버거 접시를 저렇게 놔두고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침 흘리며 서있는 순간의 재현인거지요. 그렇다고 선뜻 가집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만의 하나 임자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 무슨 회복이 불가능한 대 망신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마침 평택 카투사 교육부대에서 근무하는 조교 카투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창피해요. “저

기요. 김 병장님 저 햄버거 지금 30분이 넘도록 저렇게 놓여 있어요. 아 그래! 그런데 그게 뭐? 임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먹으면 안 될까요?" 그 때 그 조교가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야! 이놈들아 세상천지에 임자가 없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네 눈에 임자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리고 나서 고대하고 고대했던 한 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니들이 갖다 먹어라! 어차피 저렇게 놔두면 버릴 것 같은데"

임자 없는 햄버거를, 아니 정확히는 임자가 안 보이는 두 개의 햄버거를 임자 아닌 김 병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병사 둘이서 좋다고 킬킬대며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하나씩 뚝딱 먹어치웠던 거지요.

2)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렇게 임자가 안 보이는 가운데 햄버거를 임자의 허락 없이 먹어치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앞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두 구절로 사도바울은 이 세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도 남반구와 북반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외의 중립 지대 따위는 이 지구 위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심'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의는 17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바깥인 영역은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시고 역겨워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하심'이 곧 불의입니다.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찬 영역이기에 위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르지만 비교적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들이 가만있겠어요. 아마 모두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진노를 받아 멸망 받아야 할 만큼 무슨 죽을죄를 지었느냐고 따질 겁니다. 십자가 모르는 애국자도 많고 십자가 모르고 살아도 청백리로 선정될 만한 공무원도 많고 시민 상이나 공로훈장 받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항의를 해도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 바깥에 있으므로 예외 없이 불의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위로부터 오는 진노의 대상들인 겁니다.

3)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임자가 안 보이는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다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식탁 위에 햄버거 접시가 놓여 있으면 ‘이거 누가 갖다 놨지’ 라고 물을 줄은 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안 갖다 놓은 것인 만큼 임자가 따로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지상정이란 말씀이지요. 그런 물음이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인다고 내가 먹어도 되려니 하고 냉큼 먹어치우고는 임자가 나타났을 때 임자가 없는 줄 알았다는 핑계는 전혀 안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설악산이 보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 정도는 물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체 여기다 이렇게 멋진 산을 누가 갖다 놨지?’ 그런데 아무리 설악산 임자를 찾아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악산 임자가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햄버거 접시 임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임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설악산 임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의로 진행시켜버립니다. 나라에서 국립공원이라 정해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허락하는 겁니다. 임자 아닌 김 병장이 햄버거 갖다 먹으라는 허락을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나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이 코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엄마! 내 코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 확인해야지요. 내가 만든 적도 없고 부모님이 이 모습을 원해서 된 것도 아니면 누군가 내 코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고 동시에 마땅한 겁니다. 분명히 햄버거 접시가 식탁 위에 있게 한 임자가 있듯이 내 코가 이렇게 생기게 한 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얼굴의 이목구비에도 들에 핀 백합화에도 공중에 나는 새에도 모든 삼라만상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자가 계시고, 임자로서 그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임자는 분명 사람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초월적인 속성의 소유자임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세상 안에서는 내 이목구비를 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내 얼굴을 지금의 모습으로 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임자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 보이지 않으시는 모든 것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의 임자 되시는 분의 존재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것 아닌 것들을 쓰고 살면서 최소한 그 이름 모를 임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4)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임자이신 하나님 자리에 각종 우상이나 각종 허접한 이론들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농사가 망쳐질까 봐 굿을 하고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자이신 이 땅 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으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자이신 세상 안에서 사업하면서 말입니다. 눈도 코도 턱도 멀쩡한 것들을 좀 더 예뻐지겠다고 성형외과 선생님 찾아가서 마구 뜯어 고칩니다. 그 눈과 코와 턱이 다 임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의해 그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코와 눈과 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인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허망한 이론에 사로 잡혔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햄버거 접시가 식탁 위에 있듯이 이 세상 식탁 위에 노여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진화 했다는 겁니다. 빅뱅이라는 폭발의 결과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을 만큼 허망한 이론들입니다. 식탁 위의 햄버거들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빵은 빵대로 밀알이 스스로 밀에서부터 탈곡 되어 밀가루로 진화한 후 서로 뭉쳐서 햄버거 빵이 되고 고기는 고기대로 누가 고기를 잘라내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소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와 익은 뒤에, 어쩌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바람결에 우연히 날아온 접시가 식탁위에 놓이자마자 옳다구나 하면서 그 위에서 서로 순서대로 쌓여서 지금의 햄버거로 진화했다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돼는 이론들입니다. 진화론이나 빅뱅이론은 소위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설이라는 미명아래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미신과 허망함에 도달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신 존재 증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만나는 상황과 사물에 대한 임자를 묻는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향해 “이거 누가 이랬어?” 아니면 눈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향해 “이거 누구 거야?”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 세상 모든 것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5)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의 임자가 따로 있다는 이 명약관화한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28절에 말씀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

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임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임자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의 부패한 인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내가 매일 매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의 진짜 임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햄버거가 담긴 접시를 바라보면서 저와 다른 한 명의 교육병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임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임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본문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실제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만든 적이 없는 것들은 마음에 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진짜 임자는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내 것 아닌 햄버거를 먹어치우는 행위인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 걱정하잖아요? 내 인생 마음 안에 담은 것이고 마음으로 먹은 겁니다. 내가 내 자녀 걱정하잖아요? 내 마음 안으로 내가 만든 적 없는 내 자녀 먹어 치운 겁니다. 임자 안 나타나는 햄버거 먹듯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처럼 정욕대로 움직인 더러운 마음, 혹은 28절에 상실한 마음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상실한 인격이란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6)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조금은 뜬금없이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서 진노를 그 위에 두시는 불의한 모습의 대표 격으로 동성애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즉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역리를 따르는 삶의 상징적인 예로서 동성애를 언급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임자를 생각함이 없이 내 마음 안에 담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가정을 역리로 즉 임자의 뜻에 거스르며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 여기며 사업해서 잘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총체적으로 결산해보세요. 사업과 연관된 모든 것을 잘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참 행복과 평강에 대해 동성애만큼이나 역리로 삶을 이끌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물에 대해 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동성애 같은 종류의 역리적인 삶의 모습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7) 본문 말씀에 비추어보면 모든 것의 임자이신 하나님은 정말 깍쟁이고 구두쇠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이시고 그것들의 임자이신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무것도 그저 묵묵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 안에 갖도록 허락하신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것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불의에 빠

지는 것이고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내 눈 앞에 보이는 햄버거, 즉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상황 그 어느 것도 안 주십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의 임자 되시는 아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짜 임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햄버거들에 대해 임자로서 당신이 갖고 계신 뜻을 펼쳐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순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임자가 없는 햄버거가 아닙니다. 내 눈에 단지 임자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모든 상황과 사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역리로 살지 않고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은총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